

울산광역시의 환경·물 정책을 말한다!

박맹우 울산광역시장 · 노맹택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박맹우
울산광역시장

“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과 물 공급은 울산시민을 위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

한해를 마감하는 12월의 끝자락에, 한국 공업의 요람이자 세계적인 친환경 산업도시로 발돋움하려는 울산광역시를 방문하였다. 금번 협회 제2기 신임 부회장으로서 협회의 사업과 발전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박맹우 시장과 노맹택 상수도사업본부장, 두 분을 만나 울산광역시의 환경·물 정책, 그리고 물 생산 및 공급에 책임지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의 멈추지 않는 노력에 대해 들어보았다.



▲ 어린이들과 함께 한 어린 언어 방류행사에서



▲ 연양 수질개선사업소 준공식



▲ 천상정수장 준공식

울산광역시는 공업생산의 12.2%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 공업의 요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눈부신 산업발전의 이면에는 환경오염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해왔던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울산 시민들은 물론이고 시정을 지휘하시는 입장에서도 환경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울산광역시의 전반적인 환경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그동안 전국 상하수도인의 발전과 화합의 장인 2004 WATER KOREA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상하수도 분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귀 협회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울산은 지난 1960년대 이후 40여년동안 우리나라 산업의 중심기지로써 조국 근대화의 선두에서 국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공업화 과정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그동안의 환경투자를 더욱 가속화하면서 자율과 참여의 틀 속에서 울산을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친환경 산업도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생태도시로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해 6월 『Eco-Polis 울산』선언은 우리 울산을 단순한 산업도시에서 산업과 자연,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생태산업도시로 전환하려는 분수령이었으며, 우리에게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충분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울산을 세계적인 친환경도시로 발돋움하려는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9년까지 3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자율적이고 사전예방 중심의 환경관리 시책을 추진하고, 시민·환경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에코폴리스 울산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도심녹색공간의 대대적 확충과 자연생태의 보전·복원, 도심하천 수질의 획기적인 개선과 더불어 친수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한반도 동남단에 위치한 울산광역시에는 울산항, 온산항, 방어진항이 연이어 있는 울산만과 가로질러 흐르는 태화강이 있어 환경적으로 수질 자원이 풍부한 곳입니다. 따라서 수질 자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울산광역시의 주요 환경 정책 중에서 특별히 수질보전분야에 대한 사업내용과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태화강 연안수질 개선을 위하여 금년에 시행한 환경기초 시설은 시설용량 60천m³/일 규모의 연양하수종말처리시설을 2001년 3월에 착공하여 2004년 10월에 준공하였고, 또한 대곡댐 상류지선관거 부설공사를 2002년 7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연장 41.1km를 부설하였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사업인 방어진하수종말처리시설을 2000년 1월에 착공하여 2004년 8월 현재 88%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처리장이 완공될시 북구와 동구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태화강이나 연안해역으로 유입되지 않고 맑은 물로 정화되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울산시민이 매일 마시고 사용하는 수도물의 깨끗한 생산과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노명택 본부장 이하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강화되고 있는 국가환경기준을 만족하고 깨끗한 수원의 확보로 수질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수도물에 대한 관심 증대와 보다 양질의 수도물에 대한 시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수도사업본부 체계 출범 이후 내부적으로 보다 나은 수도물 생산과 시민에게 다가가는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정수처리과정의 국제 표준화, 즉 ISO 14001 인증 획득, 정수처리공정 개선 등 부단한 자기혁신과 전문화, 원가절감, 농어촌지역 등의 상수도 수혜범위 확대 등 수도 행정의 선진화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시민에게 가장 민감하면서 중요한 공공재인 맑은 물 공급에 있어 24시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노력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전직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올해에도 보다 신뢰받는 수도 행정,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도물 생산 및 공급에 노력을 배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깨끗하고 편리한 수돗물의 생산·공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맹우 시장께서 울산광역시의 전반적인 환경정책과 수질 보전사업에 관한 큰 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수도사업본부가 맡고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본부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먹는 물을 생산·공급하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전 직원은 시민의 생명과 같은 수돗물을 깨끗하게 생산·공급하여 우리의 고객인 울산시민의 삶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풍요로운 울산건설의 첩경은 바로 우리본부의 주요 업무인 수돗물의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을 위한 기반구축, 상수도시설의 확장 및 유수율 제고, 그리고 원가절감을 위한 공기업 경영의 내실화를 구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울산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2005년 새해를 맞아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은 무엇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지난해 1일 280천㎥ 공급능력의 천상 일반·고도정수장 가동으로 우리시 상수도는 질적·양적 성장의 한 획을 긋는 해였으며, 올해는 27백만㎥ 저수용량의 1급수 수원인 대곡댐 건설 및 담수로 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맑은물·깨끗한 수원을 확보하여 기존의 회야계통과 연계한 상수원의 자급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본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첫째, 전용



노맹택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식수담인 사연댐과 대곡댐의 양질의 원수를 사용, 생산하는 천상 정수장을 지난 2003년 10월 18일 완공 가동하여 일부 고지대 및 관말 지역에 발생한 급수불량을 완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종전의 직·간접 급수체계에서 간접 급수체제로 전환하는 등 급수체계를 변경함으로써 수원보호는 물론 경영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둘째, 2003년 12월부터는 도심외곽지역인 울주군 서부 5개 읍면 지역 '언양, 삼남, 상북, 두동, 두서'와 북구 강동지역에 송·배수관 부설공사를 시행함으로써, 현재 광역시 중에 가장 낮은 수도보급률을 상위수준으로 끌어올려 울산시민 모두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의 자체수원인 회야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2005년 5월 준공 예정으로 댐 상류에 친환경적인 인공 습지를 조성하여 유입 하천의 원수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맞아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우선 갈수기시 지하수 고갈로 급수불량상태를 겪고 있는 울주군 웅촌지역의 상수도 시설확충을 위해 총사업비 234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율 제고 및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사업비 70억원 투자하여 노후 급·배수관 교체, 구역개량,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우수율 76.6%를 2008년까지 84%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수원인 회야댐의 저수량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방수로 승고를 위한 라바보 설치를 적극 추진하여 원수구입비 절감을 통한 공기업 경영개선과 수질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ISO 14001 인증 취득과 관련하여 ISO 14001 인증 제도란 무엇이며, 그 추진 배경과 의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ISO 14001 인증 제도란 사후관리적이고 수동적 차원의 환경관리에서 오는 비효율성 및 환경개선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예방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지속적인 환경개선 및 개발활동을 추구하기 위한 새로운 체계인 환경경영체제의 구축 및 운영여부를 제3자를 통해 입증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 인증 제도입니다.

우리본부는 수질연구소와 회야정수사업소에 대하여 미래 지향적이고 경영혁신과 환경친화적인 경영의 모범을 보이고 수돗물에 대한 시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이미 2001년 11월에 ISO 14001 인증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현재 효과적인 환경경영체제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부 전직원은 앞으로도 인증관리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 ISO 14001인증 취득

한국수자원공사는 2005년 1월 1일부터 광역상수도 원수요금을 13.5% 인상키로 확정했으나, 부산·울산·경남 등 3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부·울·경 발전협의회에서 건의한 부산·울산·경남 상수도 원수요금 인상제고 요청을 수용하여 4.8% 낮은 8.7%를 인상키로 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울산시 상수도사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광역상수도 원수요금을 100%로 현실화하기 위해 당초에 2005년도 원수대를 13.5%로 인상키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수도 원수를 한국수자원공사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부산·울산·경남 등 3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부·울·경 발전협의회에서 적극 건의, 최종 8.7%를 인상키로 결정됨에 따라 상수도 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한으로 억제함으로써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가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게 되어 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시는 상수도 원수를 매년 50~60% 정도 한국수자원공사의 원수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당초 2005년도에 원수대 인상으로 원수구입비가 166억원 정도 부담토록 되었으나, 인상을 하향 조정으로 8억원 정도가 줄어든 158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구입비 8.7% 인상은 상수도 생산원가에 영향을 주어 전체적으로 수도요금의 1.7% 정도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와 요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우수율 제고, 생산원가 절감, 수도행정 기반의 강화와 합리적인 재정운용 등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본부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심포지엄을 매년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심포지엄을 통한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본부에서는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상수도 정책의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각계 상수도분야 전문가를 초빙, 시민에게 보다 신뢰받는 수돗물 공급을 위한 다각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중장기적인 정책대안



▲ 제6회 상수도 연구·검사기관 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을 제시받아 수도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보다 알찬 심포지엄을 통하여 울산시 상수도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계기로 삼아 상수도 행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에서는 지난 한 해(2004년)동안 「울산상수도 70년사」 발간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내용과의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시의 상수도 역사는 1934년 12월 20일 우정정수장을 준공하여 1935년 1월 10일 1,000m³의 물을 생산, 울산읍 지역에 급수를 공급한 이래 벌써 7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선암, 방어진, 회야, 천상 등의 정수장을 준공한 것을 비롯하여 낙동강계통공업용수도 확장사업, 대곡댐의 건설 및 사연댐의 생활용수 전환 등 안정적인 급수를 통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광역시에 걸맞는 상수도 환경을 구축하기까지의 상수도 변천과정과 상수도 행정의 발전과정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역



▲ 대곡댐 담수 기념식

사적인 자료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지난해 1월에 「울산상수도 70년사」를 발간키로 하고 올초에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울산상수도 70년사」에는 시정의 역사, 상수도 사업의 발전사와 상수도 행정 및 재정, 상수도 수질관리, 상수도 사업의 자산현황, 상수도 사업의 정책방향과 더불어 울산 상수도 주요연표 등을 수록하여 귀중한 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이번 발간을 통해 앞으로 상수도 행정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상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함께 힘써야 할 파트너이자 협회의 사업자 회원인 귀 본부에서 협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상·하수도 분야의 선진화 및 수질보전과 신기술 전파에 힘쓰시는 협회에 감사드립니다. 상수도의 운영은 전문화가 필수적이나, 아직까지 지방상수도에서는 신기술의 보급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전문화된 교육을 확대하여 상수도

울산광역시가 자랑하는 수질연구소는?

지역 주민에게 보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목표로 바이러스 검사 등을 위한 첨단검사장비 등을 갖추고 수질관련 1급 기사자격을 가진 석·박사 등 전문가 13명으로 구성, 원수·정수·가정의 급수까지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원수 검사

- 주간검사 : 16개 항목
- 월간검사 : 35개 항목(기준항목 5개 항목)
- 분기검사(하천수) : 42개 항목(기준항목 18개 항목)
- 반기검사(지하수) : 42개 항목(기준항목 19개 항목)



가정수도꼭지 : 5개 항목(수계별·지역별 매월 110개소)



정수 검사

- 일일검사 : 6개 항목
- 주간검사 : 17개 항목(기준항목 13개 항목)
- 월간검사 : 55개 항목
- 분기검사 : 59개 항목
- 연간검사 : 136개 항목

종사자들의 수준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주고, 또한 국내·외의 선진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네트워크를 구성, 누구나 손쉽게 신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돗물 홍보에 대한 협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반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인식은 저희 본부를 포함하여 전국 지자체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돗물 생산 및 공급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는 별도로 시민들의 '막연한' 불신으로 인해 그 거리가 상당히 큼니다. 저희 본부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지자체는 정수장 견학이나 시민들의 수돗물 평가 등 대시민 홍보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환경에서 그 홍보효과의 파장이 미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현재 우리나라 수돗물의 생산 및 공급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 습득을 손쉽게 하지 못함으로써, 즉 수돗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함으로써 야기되는 일반시민들의 막연한 수돗물 불신을 공중파 TV, 신문, 라디오 등을 통해 좀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비용적인 부분 등은 각 지자체에서 협력, 협회에 힘을 모아주면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하던 홍보 및 광고활동을 중앙차원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비용이나 시간적인 절약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협회에서 인터넷의 물사랑 홈페이지를 활용, 온라인 대국민 물절약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오프라인까지 확대하여 대대적인 수돗물 홍보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그 중심적이고 대표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그 옆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울산광역시 상수도 기본 현황(2003년 기준)

- 총인구 : 1,079천명
- 급수인구 : 978천명
- 보급률 : 90.6%
- 일평균사용량 : 319천m³/일
- 시설용량 : 584천m³/일
- 1인 1일 급수량 : 327ℓ

울산광역시 상수도 시설 현황(2003년 12월 31일 기준)

- 정수시설 : 584천m³/일
- 급수전수 : 65,828천
- 관로 : 2,103km
- 인원 : 304명
- 기구 : 2부 9사업소

